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병 술



오늘날 국제무역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선 규모면에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세계 GNP는 2배, 무역규모는 3배 증가했다. 그 사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세계주의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후퇴하고, 지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고 있다. '09년 12월 말 현재 WTO에 통보된 268개 FTA 중 약 79%에 이르는 203개가 96년 이후에 체결되었고, 세계적으로 FTA 하의 무역비중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FTA 확산추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3), EFTA (06.9), ASEAN(07.6) 14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미국(07.04), 페루(10.8)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빠르게 FTA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TA가 가진 경제효과는 주로 협정 이행 초기에 나타나고 그에 따라

확대된 교역규모가 이후에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EU나 미국과의 FTA 이행 이전에 우리 스스로 활용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지 못하면 거대 경제권과의 FTA 이행 초기 파급 영향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 FTA 실익은 당초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FTA, 이제 대외거래의 관건이다

FTA의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FTA 상대국 관세 인하를 활용하여 관세 인하폭 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수입규모가 공히 커져 2009년 기준으로 교역비중 9.7%로 3위인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일본(교역비중 10.4%)을 제치고 2위로 자리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FTA 체결국으로 원재로 수입을 전환할 경우에도 관세절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번 변경기준을 이용한 전략이 있

다. 예를 들어 기존에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인도로 재수출하는 업체가 한-인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이후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종 가공하여 인도로 수출하면 세번이 변경되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낮은 관세로 수출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을 활용한 FTA 활용모델도 있다. 플라스틱 용기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재반입하여 수출하게 되면 한국산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관세나 노무비, 운송비를 상당부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야 한다. 특히, 사후검증에 의해 FTA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할인받은 관세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며 해당 건에 대한 과거 누적세면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FT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과 그에 따른 비용 및 위험성 등을 면밀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 리스크 관리 등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내부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 원재료 목록 등을 준비하고 원산지 검증 및 실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광주는 자동차, 가전제품, 반도체, 타이어, 산업기계 등 5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75.5%이고, 전남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조선, 철강제품 등 3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 비중이 93.2%이다. 수출 비중이 0.6%에 불과한 전남의 농림수산물 수출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비해야 하나, 개별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주력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FTA 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삼성광주전자 합병 도약 계기 돼야 한다

삼성광주전자가 삼성전자가 흡수 합병된다고 한다. 이는 삼성광주전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흡수합병이 광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삼성광주전자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다음달 29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월1일부터 공식 통합된다고 한다. 이는 2013년 글로벌시장에서 생활가전 1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삼성전자가 경영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지난 1989년 광주전자(주)로 출범한 삼성광주전자는 지난해 말 총 자산규모 7685억 원에 매출액 3조2000억 원, 종업원 수 3473명의 광주지역 최대 제조업체다. 기아차광주공장과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쌍두마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삼성광주전자의 합병은 어떤 병된다고 한다. 이는 삼성광주전자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지역민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흡수합병이 광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려했던 지방세수 문제도 큰 변화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전략-배후기지로서 위상과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부문에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번 흡수 합병이 이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杞憂)이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오히려 이번 합병이 기업 가치 상승은 물론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쌀 이젠 '생명'과 '나눔'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덕꾸러기 신세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재고량이 쌓이면서 가격마저 폭락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식생활 변화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 1984년 130kg에서 지난해 74kg으로 무려 43.1%나 줄었다.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울 추수 후에는 쌀 재고가 적정량(72만t)의 약 2배인 140만t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보관 비용만도 연간 3000억 원 가량 된다. 쌀값도 폭락하고 있다. 80kg 한 가마에 13만2000 원으로 2008년의 16만2000 원에 비해 18.5%나 떨어졌다. 정부가 몇 달 전 목돈 쌀을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 등으로 결국 거두긴 했지만 그게 바로 쌀의 현주소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쌀은 생명의

원천이자 신물(神物)이었다. 조상들은 밭풀 하나 쌀 한 톨도 영혼을 담은 신성 한 존재로 여겨왔다. 추수와 함께 거둔 햅쌀을 '성주단지'에 보관하는 것도 쌀을 신성시하는 데 있었다.

민족의 주곡으로 자리 잡은 고려시대 이후 쌀은 모든 재화와 부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자 물가를 측정하는 잣대였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급료의 기준은 쌀이었다. 충공기, 보릿고개로 불리던 시절 '흰 쌀밥'은 부의 상징이었다.

이제 쌀은 나눔과 정(情)의 상징이 됐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대북 해빙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인도주의'로 통한다.

쌀에 대한 시각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애물단지'일 수는 없다. 쌀은 농업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핵심 작물이다. 쌀이 생명과 나눔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생명 줄인 쌀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면 그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음부즈맨 칼럼

조 미 옥



서울에서 국토의 끝자락인 해남 땅 끝까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즉,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유머가 있다.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마음도 몸도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꺼내 본 말이다. 명절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신문에 관심을 이터러진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였던 내가 신문 읽기에는 어리고 신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 당시에 다형히 아버

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문의 재미는 즉각적으로 표출되는 감정적 반응보다는 기사와 정보를 곱씹어 보는 즐거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광주일보의 기획기사는 매우 적절하였다. 특히 2010년 광주일보의 연중시리즈 '광주·전남 대 해부'를 통해 일차라도 시, 주거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 민주도시로서 24차례에 걸쳐 진단했다. 세계화 추세 속에 도시 간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의 여건을 검토, 정체성에 근거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설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위기감을 갖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상징적



법조칼럼

김 수 환



검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분쟁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검사실에 들어올 때는 굳은 표정으로 평생 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악수를 하고 웃는 표정으로 검사실을 나갈 때는 필자도 모르게 흐트한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반면, 분쟁 당사자들이 갈등의 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치유할 수 없는 증오만을 남긴 채 검사실을 나갈 때면 엔지 모를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 범죄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의 역사를 보면 범죄자에 대한 응보에 중점을 두는 사법모델과 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재활에 중점을 두는 복지모델의 대립이 있었다.

당사자에 대한 처분결정권자에 의한 조정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정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것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이다. 검찰에서 지난 2007년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해에는 전국적으로 7962건이 의뢰되어 51%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8년에는 1만496건이 의뢰되어 51.6%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또 2009년에는 1만6201건이 의뢰되어 52.2%의 조정이 성립되는 등 점차 의뢰건수 및 조정성립률이 증가하고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광주지검은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시민사회대표 등 지역의 각계 계층을

'광주·전남 대해부' 미래지향적 기획

님의 신문 읽는 모습을 통해서 신문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내 정신적 토양분이 되었듯이 내 자식들도 내 모습을 보면서 신문을 접하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신문으로 아는 것만이 아닌 신문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올바른 독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를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불안이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한층 더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소설 '빙정'을 쓴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가 지적했듯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익숙해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첫 키스의 짜릿함이 익숙한 권태기로, 첫 출근의 설렘이 습관성 지각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의 가치는 반 토막난다고 경고한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행을 보이지 않는다면 독자나 신문사 모두 불행하게 되며 사회 발전에도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의 사명은 사회발전의 긍정적 여력을 형성하고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지역주민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시하고 그들을 선도해 나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권력자들이 그 기능을 했다면 민주화 시대에는 여론 형성의 주역이 되고 있는 신문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알고 싶은 기사, 속 시원한 기사들이 넘쳐나서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사거리에 대해 관심과 희망을 보며 이야기함으로써 모처럼 가족 간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재미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독자들의 입맛만 맞추면 되는

형사조정제도 갈등에서 통합으로

그러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배제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우에만 중점을 두는 이념적 모델로는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치방이 되기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고령에서 최근에는 회복적 사법모델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회복적 사법모델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손상된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형사사법 이념이다. 최근 검찰은 이러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실현으로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와, 고소인 또는 피해자를 중재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형사고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피해 복구에 있기 때문에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와 조정은 궁극적으로는 당사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검사나 법원에 의한 조정은

대표할 수 있는 8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회 조정기말마다 3명의 조정위원이 형사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에서 송치된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누구든지 광주지검에 형사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형사조정에 동의하면 조정기일이 열리게 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조정성립률이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조정위원들이 분쟁 당사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고, 분쟁 당사자들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가장 나쁜 화해가 항상 더 낫다"는 법원을 생각하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정에 참여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가 될 것으로 본다. 오늘날 필자는 두 손을 서로 움켜잡고 환하게 웃으며 검사실을 나가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우리 사회가 갈등에서 통합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지검 검사>

無 等 鼓

봉건적 가족제도가 유지되던 전통사회에서 출가한 딸은 친정 아버지를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 제삿날에만 말미를 얻어 근친(親親)할 수 있었다. 시간간 딸이 눈에 밟히기엔 친정어머니도 마한가지였지만, 출가외인(出嫁外人)이니 처지는 비수했다. 평생 단 한 번도 근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딸이 출가 후 3년 내에 친정에 가서 아버지를 뵈지 못하고 그 이후에 근친하면 단명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그 야말로 생이별이었던 셈이다. 시가가 얽혀 근친을 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친정에 가지 못할 때는 통문을 보내 날짜를 정한 다음 양쪽 집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났다. '중로상봉(中路相逢)' 또는 '반보기'라고 불리던 애뜻한 풍속이다. 반보기는 한가위 무렵 지우 이뤄졌다. 반보기와 딸이, 또는 안사돈끼리 음식과 토산물을 가지고 시냇가나 고개의 적당한 곳에서 만나 인부를 확인하고 뒤탈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남쪽이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실형민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상봉 일자는 다음달 21~27일로 잡혔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고향 밭문단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7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만나는 인원이 매년 200명 안팎에 불과해 이산가족들의 가슴은 깨달게 타들어가고 있다. 통발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12만8129명 가운데 34.7%인 4만 4444명이 이미 사망했다. 지금보다 숫자를 늘려 1년에 1000명씩 만난다고 해도 남은 가족들이 다 만나려면 어림잡아 66년이 걸릴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돼 가지 못할 때는 통문을 보내 날짜를 정한 다음 양쪽 집 중간쯤 되는 곳에서 만났다. '중로상봉(中路相逢)' 또는 '반보기'라고 불리던 애뜻한 풍속이다. 반보기는 한가위 무렵 지우 이뤄졌다. 반보기와 딸이, 또는 안사돈끼리 음식과 토산물을 가지고 시냇가나 고개의 적당한 곳에서 만나 인부를 확인하고 뒤탈

중로상봉



이것만 이산가족만큼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정경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존 이산가족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들의 만남은 흥정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민족의 숙제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